

우원식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렸다”

전남대 용봉포럼서 국회의장과 5·18 의미 재조명 청년 세대 민주주의 역할·시민사회 참여 등 토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용봉포럼에 참석해 “광주의 5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18일 오후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우 국회의장을 초청해 ‘2026년 제2회 용봉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주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 5·18민주화운동과 12·3비상계엄’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광주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수차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깨어 있는 참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비상계엄 국면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과 연대 속에서 지켜진다”며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생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4석 규모의 용봉홀 좌석이 모두 찬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자리가 부족해 선 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이



전남대학교는 지난 18일 오후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2026년 제2회 용봉포럼'을 개최했다.

이어졌다.

학생들은 5·18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청년 세대의 민주주의 역할, 시민사회의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근배 총장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5·18 정신이 현재의 가치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며 “전남대학교는 앞으로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봉포럼은 전남대학교가 사회

각계 인사를 초청해 시대적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 지성 담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친환경 가루쌀, 생산부터 판로까지 체계 만들고 싶다”

전남도, 5월 친환경농산물에 곡성 '유기농 가루쌀' 신동춘 대표, 빵 가공·체험까지 6차산업 모델 제시

전남도가 곡성 '유기농 가루쌀'을 5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유기농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식이섬유와 저장전분 함량이 높아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글루텐이 없어 소화기 면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당뇨 예방과 건강한 식단 관리에 효과적이다.

곡성에서 유기농 가루쌀을 재배하는 신동춘(63) 대표는 도시 직장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2년 고향으로 귀농해 친환경 농업 길을 걸은 청년농업인 출신이다.

신동춘 대표는 귀농 초기 일반적인 재배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부터 친환경농업과 접목해 밀

재배 불모지인 곡성에서 벼를 심던 눈에 이모작으로 밀 50ha를 재배했으며, 2018년에는 밀을 수확한 눈에 처음으로 가루쌀 1ha 재배에 도전했다.

기존 동계작물은 벼 재배 시기와 겹쳐 충분한 생육이 어렵고 농약 사용 가능성도 높지만, 가루쌀은 6월 이앙이 가능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가루쌀은 첫 재배 당시 1ha 규모에서 시작해 현재 76.7ha까지 확대돼 연간 약 180톤을 생산하고 있다.

수확량도 10a(300평) 당 540kg 수준에서 580kg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반 쌀 2800원/kg보다 50% 비싼 4200원에 이른다. 또한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곡성 유기농 가루쌀 재배 신동춘 대표.

을 바탕으로 유기농 이우식, 전동주 등 가공식품 원료로 150을 공급하고 있으며, ‘쌀린이 곳간’이라는 쌀방 카페까지 직접 운영해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동춘 대표는 “친환경농업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젊은 농업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청년농업인이 가루쌀 생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생

산부터 판로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업은 단순 생산에서 가공·체험·외식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남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이정호 동신대 교수 국가유산위 매장유산분과위원장 위촉

이정호 동신대학교 K-남도문화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5월 16일까지 2년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올해 통합 출범한 국가유산청 산하 최고 자문기구로, 건축문화유산·매장유산·사적 등 총 12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국가지정(등록)유산의 지정과 해제, 매장유산 발굴, 역사문화환경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사한다.

이 교수는 오랜 기간 문화유산 연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학술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가다.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분과위원과 역사문화환경분과위원을 비롯해 호남고고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유산의 조사·보존·정비·활용 전반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고고학 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허가와 보존 조치, 조사 및 정비 방향 설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호 교수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효·박소정 부부 ‘그린노블클럽’ 헌액패 수령

서구 미라클의원 원장 부부...광주 첫 ‘부부 회원’ 누적 후원금 2억3000만원...위기아동 등 나눔도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미라클의원 강효 대표원장과 박소정 원장 부부에 1억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헌액패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대표원장과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각각 그린노블클럽 광주 15호와 16호로 가입해 후원을 약속했으며, 최근 약정한 기부금을 모두 완납했다. 부부 합산 누적 후원금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광주 최초의 ‘부부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린노블클럽은 아동의 꿈과 미래를 위해 누적 1억원 이

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후원자 네트워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후원 분야는 취약계층 냉방비와 스마트기기 지원, 난치병 환자 치료비, 인재 양성 사업, 연말 산타원정대 후원 등으로 아동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폭염이 장기화됐던 2021년에는 2000만원을 기부해 지역 아동 60세대에 냉방비와 학습용 기기를 지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난치병 환자 치료비 1000만원, 2025년에는 산타원정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미라클의원 강효 대표원장(가운데)과 박소정 원장(왼쪽) 부부에 1억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헌액패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위기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강효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인 만큼 앞으로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종명 목포대 지역인재부총장 ‘스승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김종명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인재부총장이 최근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해 전주기 인재 성장경로를 정착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김종명 지역인재부총장은 대학 통합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서 국내 최초로 ‘2.4년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통합대학의 교육부 승인을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교육과정, 학점, 편입의 연계를 제도화해 학생들의 ‘전주기 인재 성장경로’를 정착시키며 학사구조의 혁신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학·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다.

특히 산학협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기능 인력 양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며 국가 교육발전과 지역 상생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종명 지역인재부총장은 “이번 수상



은 통합대학의 성공적인 출범과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모델을 고도화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국세청, 오월 민주영령 추모...묘역 정화 봉사

광주지방국세청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최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춘계 체육의날 행사를 대신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학선 청장과 직원 19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오월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오월 민주영령을 추모한 뒤 780여기의 묘비를 정성껏 닦고, 묘역 주변을 정리했다.

또 커피트럭을 설치해 민주묘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나눔과 연대의 오월 정신을 되새겼다.

김학선 청장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제행정에 반



광주지방국세청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최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본사방문

▲이창호 광주지방조달청장